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이상현(010-4300-5441)

e-mail

cpla@minjoo.kr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 3일을 노동자가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내자!”**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이 우선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자!!”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장 김충곤)는 5월 28일(수) 오전 11시, 울산노동복지센터 6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선대위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협약체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과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는 김충곤 의장을 비롯한 단위노조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희 위원장 등 당직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선대위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확약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선 대위는 울산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이 우선되고,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세력은 다시금 내부적으로 집결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의 폭정을 다시 기억하고, 이번 대선을 내란세력 심판과 진짜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6월 3일을 노동자가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내자”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울산에서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은 한국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치방침에 따라 5월 14일(목) ‘울산노총 2025년도 3차 산별 대표자회의(정치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정치방침 이행을 의결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한국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충주음성지부, 군산지부 등 한국노총 각급 조직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계속돼

지난 27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3선, 충남 당진) 의원과 한국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강진연 의장 및 노조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강진연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한 유일한 후보”라면서 “이 후보의 노동정책을 현실에서 함께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주 4.5일제 도입·65세 정년연장 법제화·노조 권리보장 등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식에는 노승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과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해 한인식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표자 및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정한 노동을 알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찬동하여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노동 중심 대전환의 출발점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치로 실현해낼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위해 충주음성지역의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28일) **한국노총 군산지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산지역 37개 조합 조합원 1만명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군산지부 고진곤 의장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 노동자의 사명”이라며 “이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 평등,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울산본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한국노총 울산본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한국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한국노총 군산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